

그들은 왜 역사를 지우려 하나

극단 '금남로' 연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26일까지 공동예술극장

무대 위 조명이 번갈아 가며 비추는 곳은 미진의 집과 병순네 집 풍경이다. 초라하고 낡은 세간살이와 변변찮은 반찬으로 식사하는 모습의 미진네와 와인, 스테이크를 먹는 병순네는 극명한 비교를 이룬다. 밥상머리에서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던 미진네 가족에겐 속 깊은 애정이 있다. 반면 돈밖에 모르는 졸부 병순이 키운 아들 철수의 괴물 같은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병순은 온갖 부정을 통해 아파트 재개발을 성사시켜 돈을 벌려고, 미진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과 동네를 지키려 한다. 두 가정의 이야기는 어느 날 미진의 아들 모진이 머리를 다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결이 되고 병순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

지난 21일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24일 오후 7시30분, 25~26일 오후 4시·7시)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재개발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오월 광주'를 들여다본 작품이다.

이번 연극은 청주대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창단한 극단 '금남로'의 첫 작품이다. 강민수(31), 김윤지(22·여), 이동협(23), 윤봄(21·여), 박구용(23), 차재훈(22), 최진(23), 하태희(22·여)씨 등 8명의 배우들은 지난해 말 광주에 내려와 공연을 준비했다.

청주대 학생들이 광주까지 내려와 극단을 만들고 5월 연극을 올리게 된 사연은 이번 작품의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은 학교 선배 박진철(36)씨의 영향이 컸다. 박씨는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옛 전남도청을 지키는 5·18 유가족들의 사

재개발 통해 본 5월 이야기
청주대 학생들 극단 꾸려
작년말부터 광주 내려와
공연 준비하고 피켓 홍보

“5·18 역사 알리기 위해
매년 ‘오월 연극’ 올릴 것”

연'과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감을 얻어 대본을 썼고, 자신과 작업을 하고 싶어 내려온 후배들에게 공연을 제안했다.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은 전남도청을 지키는 유가족을 만나고, 518 재단 등을 방문하며 조금씩 역사를 알아갔다. 도청이 사라지면서 잊혀져 가는 5·18민중항쟁을 알리기 위해 매주 토요일 금남로에서 피켓 홍보 활동을 하고, 5·18현장 보존 서명도 받았다.

극단 이름은 '오월 광주'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를 담아 '금남로'로 지었고 이번 공연 제작비도 사비로 충당했다.

이번 작품은 '5·18'과 '광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열핏 전당과 아파트 재개발, 5·18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의아해지기도 하다. 하지만 출연진의 캐릭터와 그들이 던지는 대사를 찬찬히 곱씹어보면 조금씩 그림이 보인다. 좌우로 분열된 나라, 역사를 지키려는 자들과 부수려는 자, 현실을 핑계대며 삶을 바꾸려는 자, 힘든 현실

을 지해두고 용기있게 극복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구성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 다소 작위적이고 대립하는 두 가정의 모습도 도식적이다. 출연진들의 연기는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탄탄한 기본기가 눈에 띄는 배우들도 보인다.

“1980년 5월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매년 금남로 5월 행사에도 참여하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금남로 거리를 걷게 된 게 어디서 기인한 건지 늘 생각했죠. 광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편에 얹어 버리는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사태를 보며 작품으로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타지에서 광주에와 고생한 후배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남로”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오월 연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올 여름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을 SF 장르로 풀어낼 계획이다.

“극단 ‘금남로’는 오월 이야기만을 무대에 올리려 해요.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직접적인 5·18 이야기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멜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SF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박진철)

강민수 극단 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져가는 5·18의 기억을 연극 작품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연극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5000원. 문의 010-4841-89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26일까지 광주 공동예술극장에서 상연되는 극단 금남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모습. <극단 금남로 제공>

봄 오는 길목... 그윽한 묵향에 취해볼까

김창배 개인전... 내달 4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우정미술관

선묵화(禪墨畵) 세계를 선보이는 담원 김창배 작가가 광주에서 '차(茶)와 선(禪)의 만남'을 주제로 전시를 갖는다.

김 작가는 24일~3월4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와 우정미술관(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31)에서 작품 100여점을 나눠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가 최근 출간한 저서 '한국선화법' 출판 기념을 겸해 광주, 서울, 부산, 안동 등에서 갖는 순회전이다. 김 작가는 그동안 '차 한잔의 풍경', '달마' 등 저서 22권을 펴내는 등 그림과 책을 통해 한국 선(禪)과 차(茶)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차가 주는 행복, ‘평안’, ‘마음의 거울 연꽃’ 등 모든 작품에는 차를 다리거나 마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다. 단원 김홍도의 화풍을 잇고 있는 만큼 해학과 민속적인 색채를 자아내고 있다.

작품 ‘은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제자가 끓여주는 차를 기다리는 노인이 등장한다. 팔을 머리에 괴고 편하게 누워있는 노인 옆으로는 책과 다기(茶器)가 보이는 등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표현했다.

또 ‘누실명’, ‘표원시명’ 등 직접 지은 한시를 곁들인 작품도 출품했다. “기러기 소리 달빛 따라 흐르고...”가 적힌 ‘달빛차회’ 작품은 갈대숲에서 차를 즐기는 가족들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가는 ‘조매자회’(早梅茶會·내 마음 눈



꽃 갈아라)를 주제로 차회(茶會)도 연다.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이야기 삼아 광주 예지원과 (사)한국 차문화협회 광주지부 등 10여곳에서 찾자리를 편다.

김씨는 “차(茶)와 선(禪)은 결국 하나다”며 “차향과 묵향이 가득한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현재 서울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하와이, 중국 베이징, 폴란드 등에서 개인전을 약 60회 열었다. 2012 한국서예문화예술상, 2015 한국미술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한국미협 선묵화 분과위원장, 한국문인화연구회, 안경문화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아트타운갤러리), 062-383-8408(우정미술관).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스크린 교체 광주극장

26일 '시네마 천국' 상영

지난 24일부터 새로운 스크린으로 영화를 상영중인 광주극장이 '새 스크린 맞이 특별 상영회'(26일 오후 1시40분)를 개최한다.

상영작은 영화와 영화관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천국'(Cinema Paradiso)이다. 엔리코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주인공 토도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영화 상영 전 스크린 교체 메이킹 영상도 선보인다. 관람료는 전석 3000원이다.

광주극장은 이번 상영 수익을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 달'을 돕기위한 스토리 펀딩에 전액 후원할 예정이다.

'시네마달'은 '나쁜 나라', '업사이드 다운' 등 어두운 현실이 담긴 영화를 제작해왔다. 특히 '다이빙벨' 배급 이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내사 지침'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네마달 지키기 공동연대'가 만들어져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피아니스트 양지 독주회 2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양지가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양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58번 C장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사냥' 등을 들려준다. 또 미국 작곡가인 에드워드 맥도웰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Norse', 로엘 리버만의 곡을 연주한다.

광주예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동 대학 음악원을 마친 양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전액 장학생으로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음악석사 학위를, 텍사스텍 주립대학교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러시아 국립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로 데뷔한 그는 미국 유학시절 도나타나 스미스 피아노 경연에서 1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초빙교수, 중앙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3월 4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전석 2만 원. 문의 02-592-38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망연선 18)

아프리카 신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